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연구

A Study on Brown's Subject Classification

곽철완 (Chul-Wan Kwak)*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초판을 분석하여 오늘의 분류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06년에 발표한 주제분류법 초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의 구성에서 주제분류법의 주류는 크게 11가지로 구분되며, 각 주류는 000에서 999로 세분되어 열거식으로 나열되었다. 둘째, 분류기호 합성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셋째, 새로운 주제 처리 방법으로 본표에 없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면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삽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다. 분류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전의 분류법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인 복합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 합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패시을 지원하는 보조표 운영을 통하여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자관별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분류법으로 분류체계에 새로운 주제를 쉽게 삽입할 수 있거나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간략한 분류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제공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rst edition of Brown's Subject Classification an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oday's library classification. For this purpose, the first edition of the Subject Classification published in 1906 wa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divided into three main areas. First, SC is divided into eleven main classes and each class is subdivided into enumerated subdivisions from 000 to 999. Second, As a method of synthesizing the classification numbers, there were three methods of synthesis. There was a flexibility to insert a new classification number at the appropriate location when a new topic that does not appear in the main table appeared. Implications for classification studies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First, SC proposed a method of classification number synthesis for composite topics, which is an innovative method that was not available in previous library classification. Second, the subject matter was explained in various aspects through the operation of auxiliary tables supporting the facets. Third, it is possible to easily insert a new topic into the classification system by using the SC that can have a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library, or to use a short classification number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library collection. Fourth, it provided a directory that can be considered as access points for digital materials.

키워드: 주제분류법, 열거식 배열, 도서관분류법, 분류기호 합성, 보조표
subject classification, enumeration arrangement, librar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numbers synthesis, auxiliary table

* 강남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ckwak@kangnam.ac.kr)

■ 논문접수일자: 2018년 11월 4일 ■ 최초심사일자: 2018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8년 12월 25일
■ 정보관리학회지, 35(4), 37-50, 2018.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4.037>]

1. 서론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및 유럽의 도서관 환경은 이전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당시 도서관 환경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도서 출판의 증가와 도서관법 제정이 도서관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출판량이 증가되면서 도서관의 장서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 도서관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도서관의 장서가 증가되면서 장서 관리 방법과 효과적인 자료 검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도서관 분류법이 발표되었는데, 주제분류법도 그 중 하나였다. 특히, 주제분류법은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개가제가 운영되면서, 이용자가 서가에서 자료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분류법이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도서관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은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많은 변화 중 도서관 자료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도서관의 장서의 증가와 함께 자료의 주제도 다양해지고 융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자료도 크게 증가하였다. IT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자료 검색을 위한 도서관 목록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환경은 변화되고 있지만, 도서관 분류법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분류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주제(예, 문학류)는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 수가 너무 많아, 이용자는 분류를 통한 세부적인 자료 검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도서관 환경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분류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0여년 전 영국에서 발표된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을 오늘날 다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서관 분류법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100여년 전에 혁신적인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발표한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초판을 분석하여 오늘의 도서관 분류법 연구에 적합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James Duff Brown이 1906년 발표한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Cornell University 도서관 소장)를 HathiTrust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주제분류법의 성립 배경

James Duff Brown(1862-1914)은 영국의 도서관 학자로 미국의 Dewey와 같이 영국 도서관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Sayers, 1959, p. 175).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으며, 정규교육은 13세 혹은 14세 때 끝났지만, 스스로 도서관, 음악, 문학 분야의 책을 읽었고, 글래스고우의 공공도서관인 미첼도서관(Mitchell Library)에서 도서관 업무를 배웠다(Beghtol, 2004). 1888년 런던의 클러큰웰 공공도서관(Clerkenwell Public Library)에서 사서로 일할 때, 도난방지 장치를 갖춘 개가제 서가를 소개하여 19세기 영국 도서관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브

라운은 도서관에 개가제가 도입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용자 스스로 서가에서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는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영국의 일부 도서관에서는 DD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DDC가 너무 복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Sayers, 1959, p. 175).

이러한 환경에서 브라운은 1894년 John Henry Quinn과 함께 “개가제를 운영하는 도서관을 위한 도서 분류법(Classification of books for libraries in which readers are allowed access to the shelves)”이란 이름으로 첫 번째 분류법을 발표하였다. Quinn-Brown Classification으로 알려진 이 분류법은 소규모 도서관에는 적합하였지만,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1897년 브라운은 Quinn-Brown Classification을 수정한 Adjustable Classification을 발표하였는데, 이 분류법의 주류는 주제분류법(Subject Classific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제분류법의 특징 중 하나인 자연과학이 주류의 맨 앞에 등장하였다. 브라운의 새로운 분류법이 영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영국에서 DDC를 채택하는 도서관이 증가되면서 DDC의 분류체계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었다. 이에 브라운은 1906년 완전히 새로운 분류표인 주제분류법을 발표하였고, 1914년에 개정판, 그리고 브라운 사후인 1940년에 제3판이 발행되었다.

브라운은 주제분류법 외에도 도서관과 관련된 새로운 발명품 도구를 소개한 Handbook of Library Appliances를 1892년 발표하였고, 1898년에 Manual of Library Classification and Self Arrangement를 발표하였다. 또한 주제분류법

을 발표하던 1906년에 A Manual of Practical Bibliography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였다(Beghtol, 2004).

3. 주제분류법의 특징

3.1 구성

3.1.1 본표

본표는 11개 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류는 000에서 999까지 숫자로 세분되어 있다. 주류 배열에 있어서 브라운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은 이전에 이미 두 가지의 분류법을 발표했으나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고, 듀이는 1899년에 DDC 제6판을 발행한 상황에서, 브라운의 새로운 분류법은 DDC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브라운은 DDC 주류 배열의 약점인 비논리성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류 배열에 과학적인 이론을 도입하였다. 주류는 크게 물질과 물리력-생명-정신-기록 순으로 구분하고 배열되었다. 주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DDC를 비롯한 Cutter의 전개분류법 주류에서 사용하던 A 총류(Generalia)를 첫 번째 주류에 배정하였다. 이곳에는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분야와 과학, 산업 혹은 인간과학 아래에는 배열할 수 없는 규칙, 방법, 요인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총류의 하위 주제에는 논리적으로 특정 주류에 포함시킬 수 없는 주제들을 포함시켰다.

둘째, 물질과 물리력에 대한 주류로 여기에는 B-C-D 물질과학(physical science)이 포함

되었다. 물질과학에는 물질, 물리력, 운동 및 이와 관련된 응용 등이 포함되며, 생명과 정신 앞에 위치하여 주제분류법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주류로 선택되었다.

셋째, 생명에 대한 주류로 생명과학, 인류학과 의학, 경제 생물학이 포함된다. E-F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은 물질로부터 탄생한 생명과 이와 관련된 형태에 대한 주제로 식물과 동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류의 3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G-H 인류학과 의학(Ethnology and Medicine)은 인간의 생명, 육체, 질병, 체육, 여과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I 경제 생물학과 국내산업(economic biology and domestic arts)은 농업, 수의학, 임업, 음료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신에 대한 주류로 여기에는 철학과 종교, 사회 및 정치학이 포함된다. J-K 철학과 종교(philosophy and religion)는 형이상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 종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주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L 사회 및 정치학(social and political science)은 인간

사회의 사회적 규칙과 법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주류로 여기에는 언어와 문학, 문학작품, 역사 및 지리, 전기자료가 포함된다. M 언어와 문학(language and literature)은 인간 생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기록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N 문학작품(literary forms)은 앞의 언어와 문학 기록의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다. O-W 역사, 지리(history, geography)와 X 전기(biography)는 세계 각국의 역사 및 지리와 전기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Brown, 1906, pp. 11-12).

주류의 구성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KDC나 DDC와 비교하면, 주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고 차등으로 분배하고 있다. 특히, 역사, 지리 주류는 알파벳 문자가 9개나 되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혹은 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표 1〉 주제분류법의 주류

A	GENERALIA	
B-D	PHYSICAL SCIENCE	MATTER AND FORCE
E-F	BIOLOGICAL SCIENCE	
G-H	ETHNOLOGY AND MEDICINE	} LIFE
I	ECONOMIC BIOLOGY	
J-K	PHILOSOPHY AND RELIGION	
L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 MIND
M	LANGUAGE AND LITERATURE	
N	LITERARY FORMS	} RECORD
O-W	HISTORY, GEOGRAPHY	
X	BIOGRAPHY	

출처: Brown, James D.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p. 79.

반면에 주류를 동일하게 분배하고 있는 DDC의 900 역사, 지리는 역사, 지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주제가 포함된 역사,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보조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DDC의 이러한 방침은 도서가 지역을 중심으로 서가에 모이기 어려우며, 각 주제로 분산된 지역관련 도서는 해당 도서의 분류기호가 길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분류법의 역사, 지리 주류의 전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대양주와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고, 영국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전개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간 후,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분류기호가 전개되어 있는데, 380 Ch'ao-sien, or Dai Han(Korea, Corea), 381 Monarchs, 382 Seoul, 383 Pingyang, 384 Fusan, 385 Chemulpo, 386 Wonsan, 387 Masampo(Brown, 1906, p. 183)로 상당히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DDC 제23판의 지역구분표(Table

2)의 우리나라 구분은, -519 Korea, -5193 North Korea(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5195 South Korea(Republic of Korea)로 매우 간략하다(Dewey1, 2011, p. 364).

3.1.2 보조표

보조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며 핵심 보조표인 '카테고리 표 및 색인(categorical tables and index)'은 본표 주제의 세분화를 위한 표로 DDC의 표준구분표(Table 1. standard subdivisions)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표는 .0 Generalia부터 .975 West 까지 약 1,000가지의 형식, 구, 관점, 적용 등을 본표의 주제에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보조표이다.

이 보조표는 특별한 지시 없이도 본표의 분류기호와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표와 보조표 사이에 온점(.)이 삽입된다. 예를 들면, London Bibliography의 분류기호는 U900.1인데, London, General의 분류기호가 본표에서 U900이며, Bibliography는 '카테고리 표 및 색인'에서 .1이므로 U900과 .1이 합성되어 U900.1이 생성된다(Brown, 1906, p. 16).

〈표 2〉 역사와 지리 구분

주제분류법, 초판
O-W—HISTORY & GEOGRAPHY
O—Universal History and Africa
O300 AFRICA
P—OCEANIA AND ASIA
Q—EUROPE, GENERAL AND SOUTH(Latin and other Nations)
R000 FRANCE
S-T NORTH EUROPE—SLAVONIC AND TEUTONIC NATIONS
U-V—BRITISH ISLANDS
W—AMERICA

〈표 3〉 ‘카테고리 표 및 색인’ 적용 사례

E100	Botany, General	E427	Orchids, General
E100.1	Botany Bibliography	E427.1	Orchids Bibliography
E100.2	Botany Dictionary	E427.3	Orchids Text-books, Systematic
E100.10	Botany History	E427.6	Orchids Societies
E100.57	Botany Museums	E427.7	Orchids Periodicals
E100.89	Botany Classification	E427.10	Orchids History

출처: Brown, James D.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pp. 16-17.

〈표 4〉 주제가 ‘카테고리 표 및 색인’와 본표에 동시 출현 사례

주제	‘카테고리 표 및 색인’	본표
Machinery, Implements, Tools(General)	.167	B110
Social History	.17	O003
Universities	.73	A180
Classification	.89	A320
Dictionaries of Language	.897	M051

또한 이 보조표는 동일한 주제가 한 곳에 모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DDC의 보조표와는 달리 본표에 제시된 항목을 약 90% 이상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14 Modern History는 본표에 O061 Modern History, alone(1453-)으로도 존재한다. 즉, 주제분류법의 ‘카테고리 표 및 색인’ 보조표는 주제분류법의 핵심인 동일한 주제를 포함한 도서는 동일한 장소에 분류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주류 요약표(summary table of main classes)는 주류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본표 대신 사용하거나, 주제를 합성할 경우 짧은 분류기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이다. 이 표는 본표의 대체표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실제 보조표는 아니지만 본표 대신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요약표는 본표에 제시된 분류기호를

문자와 첫 자리 숫자(일부는 2째 자리 숫자까지 적용)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다(Brown, 1906, pp. 80-82). 당시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신설되고 있던 상황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위한 분류법이 필요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에 장서가 증가하면, 본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카터의 전개분류법과 유사하다.

셋째, 저자기호표(table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and the arrangement of individual biography, fiction, poetry, drama, essays and other alphabetic classes)는 전기자료나 문학 작품 혹은 다른 주제의 세분화를 위해 저자의 이름을 300부터 945까지의 숫자로 구분한 표로, 이름을 알파벳을 기준으로 3~4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이 보조표의 적용 방법은 이름 전체를 합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James D. Brown은 저자기호표에 의하면 Bro 3434, Wn

896이므로 이 두 기호를 합성하여 3434896이 생성되며,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3434로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보조표는 본표의 개인 전기자료에 X300~X945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주제(예, 소설, 시 등)에도 분류기호로 사용되어 저자를 기준으로 도서가 체계적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Brown, 1906, p. 25).

주제분류법의 저자기호 배정은 DDC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전기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전기 작가를 기준으로 알파벳에 따라 합성된 분류기호를 부여하였다. 반면에 DDC의 분류 기준은 해당 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피전자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3.1.3 기호법

기호법으로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혼합한 혼합기호법을 적용하였다. 'A 총류(Generalia)'에서 'X 전기자료(Biography)'까지 11가지 주류는 알파벳 문자 1자리와 아라비아 숫자 3자리로 기본 분류기호를 구성하였다. 주류는 하위 주제로 세분화되었지만 주류와 하위 주제 모두 동일한 길이의 분류기호를 사용하였고, 다만, 본표에 들여쓰기로 하위 주제를 세분화하였다.

주제분류법에서 특수한 경우로 알파벳 목록에 청소년 자료에 대해 분류기호 앞에 juvenile 'j' 혹은 children 'c'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 식물학 교재의 분류기호는 jE100.4 혹은 cE100.4가 생성된다. 필요하다면, 더 구분할 수 있는데 소녀용으로 'g', 소년용으로 'b'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서는 찬성적인 도서에는 *, 부정적인 도서에는

** 표시를 하거나, 찬성적인 도서에는 'f'(for), 반대 입장을 취하는 도서는 'a'(against)를 표시한다(Brown, 1906, p. 32).

〈표 5〉 하위 주제 세분화 기호법

주제분류법, 초판	
A400	MATHEMATICS
A401	Arithmetic
A401	Numeration and Notation
...	
A408	Addition
A409	Subtraction
A410	Multiplication

3.2 분류기호 합성

3.2.1 복합 주제

주제분류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동일 장소(one-place) 개념으로 구체적인 주제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브라운은 도서관 분류학자로는 처음으로 복합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복합 주제를 가진 자료 처리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일 주류에 포함되는 복합 주제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주제 분류기호와 두 번째 주제 분류기호를 + 기호를 사용하여 합성한다. 예를 들면, 도서의 주제가 풍경 수채화(landscape painting in water colours)인 경우, 첫 번째 주제인 landscape 분류기호 A639를 먼저 표시하고, 다음에 제시된 water colour painting 분류기호 A616에서 A를 제외한 616을 + 기호를 삽입한 후 합성한다. 그리하여 풍경 수채화 분류기호는 A639 + 616이 된다(Brown, 1906, p. 21).

둘째, 서로 다른 주류에 속해 있는 복합 주제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의 방법과 같지만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에서 문자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 예를 들면, logic and rhetoric은 첫 번째 주제인 logic의 분류기호 A300에, 두 번째 주제인 rhetoric의 분류기호 M170을 합성하는데, 두 주제가 속한 주류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기호의 문자 기호를 포함하여 합성하여 분류기호는 A300 + M170이 된다.

셋째 ‘카테고리 표 및 색인’ 보조표를 이용한 복합 주제 처리 방법이다. 본표에 포함된 모든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복합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보조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표에서 ‘분류’에 대한 분류기호는 A320으로 일반적인 분류를 설명하는 도서가 이 분류기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식물의 분류와 같은 복합 주제는 식물 분류기호 E100에 ‘카테고리 표 및 색인’ 보조표에 있는 ‘분류’에 대한 분류기호 .89와 합성하여 E100.89가 생성된다(Brown, 1906, p. 20).

보조표를 활용한 또 다른 사례로 2개 국어 사전에 대한 분류는 자국어가 아닌 언어에 분류하고, ‘카테고리 표 및 색인’에서 사전 분류기호인 .897을 합성한다. 즉, 영국의 도서관에서 Greek-English 사전에 대한 분류는 Greek 분류기호 M457과 ‘카테고리 표 및 색인’에서 사전에 대한 분류기호 .897을 합성하여 M457.897이 생성된다. 만약 2개 국어 사전에 자국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알파벳 순서에서 앞선 언어에 분류하고 .897을 합성한다. 이와 같이 ‘카테고리 표 및 색인’은 주제를 한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활용되고 있다(Brown, 1906, p. 23).

또 다른 보조표인 연대표가 세부적인 시대 구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영국 스투어드 왕조의 제임스 1세 분류기호는 V551인데, 여기에 보다 세부적으로 1605년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연대표에서 1605년을 나타내는 fz를 선택한 후, 합성하여 ‘제임스 1세 통치 시기 중 1605년’에 대한 분류기호 V551fz로 생성할 수 있다(Brown, 1906, p. 24).

하지만, 3가지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복합 주제의 경우에는 이를 합성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주제 표목 아래 분류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빛, 음향, 열을 포함하는 도서는 물리학에 분류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도 있다(Brown, 1906, p. 18).

이처럼 복합 주제 처리에 대해서 주제분류법이 다른 분류법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분류법 발표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분류법은 이미 여러 분류법이 발표되어 그 분류법들의 단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동시에 주제분류법은 개가제 서가를 위한 분류법으로 이용자가 서가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복합 주제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 하지만 DDC의 경우, Dewey가 도서관 목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차적인 산물이었기 때문에, 복합 주제에 대한 부분은 목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고, 분류는 그 중 대표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1965년에 발행된 DDC 제17판부터 DDC에도 복합 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보면 주제분류법이 열

마나 혁신적인 분류법인지 알 수 있다.

3.2.2 지역 합성

지역 합성 방법은 주제를 우선하는 방법과 지역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를 우선하여 지역을 합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주제와 국가 분류기호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제의 분류기호에 국가 분류기호를 합성한다.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의 프리메이슨'에 관한 일반 도서의 경우, 프리메이슨 분류기호 L185에 미국 텍사스 분류기호 W328을 합성하여 L185W328 분류기호가 생성된다. 둘째, 첫째 방법에서 지역 분류기호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주요 주제 및 국가에 대해서는 본표 앞에 제시된 '주류 요약표'를 적용하여 간략화된 분류기호를 합성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프리메이슨에 관한 일반 저작의 경우는 프리메이슨 분류기호 L185에 미국 분류기호 W1을 합성하여 L185W1 분류기호가 생성된다. 이때, 미국의 분류기호는 본표에서는 W100이지만, '주류 요약표'에서는 W1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다(Brown, 1906, p. 14).

다음으로 지역을 먼저 구분한 후, 주제를 합성하는 방법은 지역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에 대한 도서는 주제인 성에 분류한 후 지역을 구분

하는 방법 보다는, 에든버러 지역에 분류한 후, 여기에 성의 분류기호를 합성하여 분류하면 이용자는 에든버러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 지역을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주제분류법에는 분류작성자 개개인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우선에 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우선의 사례로는 기념비적인 유적, 상징물, 건물 등을 제시하고, 도서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역을 우선 구분하고 주제를 합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이나 성당은 지역에 분류하지 않고 주제에 분류하지만, 이 경우 지역을 강조하고 싶으면 목록에 지역 주제명을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Brown, 1906, p. 19).

3.3 새로운 주제 처리 방법

3.3.1 분류기호 삽입

브라운은 주제분류법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제를 본표에 다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개별 도서관에 따라 본표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는 자료가 입수되면, 본표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자관에서 필요하다면 본표의 적절한 곳에

〈표 6〉 지역 구분 사례

지역 중심의 분류		주제 중심의 분류	
Edinburgh Churches	V331J852	The Flora of Surrey	E172U830
Edinburgh Cathedrals	V331J851	The Geology of Arran	D398V222
Edinburgh Mansions	V331B432	Freemasonry in Russia	L185S0
Edinburgh Castles	V331B972	Cathedrals of the World	J851
Edinburgh Streets	V331B278	Cathedrals of France	J851R0

0~9 숫자를 첨가하여 새로운 분류기호를 만드는 것으로, 숫자를 첨가할 때 순서대로 0부터 첨가하거나 혹은 중간 중간에 자리를 비워놓고 숫자를 첨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표에서 Catholic Apostolic Church의 분류기호가 K951이며, Christian Endeavour Society의 분류기호가 K952인데, 두 분류기호 사이에 새로운 주제를 위한 분류기호를 삽입하면, K9510, K9511, K9513 등의 분류기호가 만들어진다. 도서관에 따라 장서가 더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00~99 혹은 000~999를 분류기호 다음에 첨가하여 확장할 수 있다 (Brown, 1906, p. 14).

분류기호 확장 측면에서 이 방법은 개별 도서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연성을 주어, 개별 도서관의 요구를 잘 반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를 분류하지 않고 국가서지기관에서 작성한 서지정보를 참조하여 자관에서 분류를 하거나 목록을 작성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3.3.2 유사 분류기호에 분류

해당 주제를 포함하는 분류기호가 본표에 없

다면, 본표에 있는 유사한 분류기호에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해당 분류기호에 분류된 혹은 앞으로 분류될 자료와 구분하기 위해 해당 분류기호에 .02를 합성하여 분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Brown, 1906, p. 15). 지명의 경우 본표에 나열하고 있는 분류기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지명은 본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도서를 분류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분류기호가 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인근 지역의 분류기호에 분류하되, .02를 합성하여 기존의 지역에 분류한 다른 도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3 향토자료 처리

특정 지역에 관한 향토자료가 대규모로 존재할 때, 향토자료만을 위한 분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표의 분류기호로 배정되지 않은 Y 문자를 사용하여 향토자료에 대한 분류기호를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인 '미들로디언(Midlothian)의 디렉토리'에 대한 분류기호가 V330.52인데, Y00.52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분류기호를 통하여 미들로디언의 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때, Y00이나 Y16과 같이 Y 문자 다음

〈표 7〉 분류기호 삽입 방법

일련번호 삽입	공란을 남기는 방법
K951 Catholic Apostolic Church	K951 Catholic Apostolic Church
K9510 Christadelphians	9510 〈공란〉
K9511 Christian Strugglers	K9511 Christadelphians
K9512 Christian Travellers	9512 〈공란〉
K9513 Christian Worshippers	K9513 Christian Strugglers
K952 Christian Endeavour Society	9513 〈공란〉

출처: Brown, James D.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p. 14.

에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특정 지역 향토자료의 양이 많다면 Y000과 같이 Y 문자 다음에 3자리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Brown, 1906, pp. 36-37).

둘째, Y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지역 분류기호 다음에 지명을 알파벳 기준으로 배열한 다음, 0~9까지의 숫자를 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미들로디언 지역의 분류기호가 V330 인데, 본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Borthwick는 V3300, Carrington은 V3301 순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다(Brown, 1906, p. 37).

4. 주제분류법의 영향과 시사점

4.1 영향

오늘날 일반 도서관에서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브라운의 분류 사상은 다른 분류법에 계승되었다. Sayers(1918, 1922)는 초기에 주제분류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렸으며 다른 분류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40년이 지난 1959년 Sayers(1959, 177)는 주제분류법이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과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순히 언급하고 있다. 주제분류법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중 하나는 Clare Beghtol의 연구가 있다. 그녀는 주제분류법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복합주제 처리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분석을 통한 분류기호 합성 방법과 동일 장소(one-place) 개념이다.

복합주제 처리에 대해서 Beghtol(2004a)은

DDC의 경우 17판(1965년 발행) 이전에는 복합주제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는데, 주제분류법은 이미 1906년에 3가지 유형의 복합주제에 관한 분류기호 합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Beghtol은 도큐멘테이션 분야의 UDC에서 복합주제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도서관 분야에서는 브라운이 최초의 복합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한 분류학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분석 합성 개념에서 볼 때, 브라운 이전의 19세기 분류체계는 하향식 '지식의 세계(universe of knowledge)' 기반이었다면, 브라운은 상향식 '개념의 세계(universe of concepts)' 분류체계를 제시한 최초의 분류학자이다. 이 개념은 후일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에서 적용한 '개념의 세계'를 출발점으로 하는 분석 및 합성 분류체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로 Beghtol(2004b)은 주제분류법의 '카테고리 표 및 색인'에 포함된 항목들을 정리하면 랑가나단이 사용한 형식 패킷과 일치하며, 주제분류법에서 적용한 + 기호를 사용하는 복합주제의 합성 방법을 예로 들었다. 브라운이 시작한 분류기호 합성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분류법에서 일반화되어 있다(Beghtol, 2004b).

주제분류법의 동일 장소 개념은 블리스의 서지분류법 제2판(BC2)에 나타나는 '현상 클래스(phenomenon class)'로 표현되었다(Beghtol, 2004b; Kumbhar, 2012, p. 59). 현상 클래스는 주제분류법의 핵심 개념인 주제는 여러 학문 영역 중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동일 장소'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서지분류법 제2판에서는 주제분류법에서 성립된 '구체적인 주제'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적이며 이론적으로 확립시켰다.

4.2 도서관 분류법 연구의 시사점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분류법은 DDC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KDC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DDC나 KDC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분류법이지만 오늘날에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지금처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융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자료가 증가하고, 자료형태가 변화하고, 동시에 온라인 목록으로 발달한 상황에서는 다른 유형의 도서관 분류법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100여년 전에 발표된 주제분류법이 오늘날 도서관 분류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주제를 포함한 도서에 대해 각 주제를 분류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분류기호 합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류기호 합성 개념은 주제분류법이 발표되었던 당시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었으며, 주제분류법의 기본 개념인 동일장소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동일장소 개념은 이용자가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제는 한 곳에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분류기호 합성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주제분류법에서는 + 기호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두 가지 주제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분류법에서 분류기호 합성의 개념이 일반화 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는 분류기호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분류기호만을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DDC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중국 이민 노동자'에 대한 분류기호는 331.62510794인데, 331.6251은 중국

이민 노동자에 대한 분류기호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분류기호는 794(Table 2)로 이들 두 분류기호를 합성하기 위해 중간에 0을 삽입하였다. 분류작성자는 DDC의 지시사항에 따라 위와 같은 긴 분류기호를 생성하였지만 이용자는 각 기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분류법에서는 융복합 주제를 분류기호를 통해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분류법의 분류기호 합성 방법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류기호 합성을 위해 다양한 패킷을 지원하는 보조표를 운영하였다. 오늘날 패킷을 통한 정보 접근은 도서관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정보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카테고리 표 및 색인' 보조표는 본표의 주제에 형식, 관점, 적용 등에 관한 분류기호 합성을 지원하는 보조표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패킷을 지원하는 보조표이다. 주제분류법을 이용하여 정치학 사전에 분류하면, L200.2의 분류기호가 생성되는데, L200은 정치학이며, .2는 사전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킷을 활용하여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새로운 주제에 대해 자관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법이다. 개별 도서관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류기호를 첨가하여 확장된 분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간략한 분류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의 규모가 다양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설립 목적이 다른데 동일한 분류체계를 가진 분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주제분류법은 기본적으로 당시 적용 가능한 주제를 나열하고

도서관 장서에 따라 확장이 필요한 주제 분야에 대해 개별 도서관에서 임의로 분류기호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위해 별도로 사용 가능한 미지정 분류기호 Y를 남겨두고, 동시에 소규모 도서관을 위한 '본표 요약표'를 제시하여 장서량이 적은 도서관을 배려하였다.

넷째, 오늘날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의 증가는 기존의 도서관 분류법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서가에 도서를 배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디지털 자료의 접근을 위한 분류체계는 서가에 도서를 배열하기 위해 만든 분류체계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분류법의 열거형 분류체계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주제분류법의 본표에서 주제는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분류기호의 포함 범위를 다양하게 하고, 주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열거식으로 나열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의 분류기호는 100이며, 국가 교육은 101, 교육 방법은 110, 교육시스템은 115, 학교와 대학은 130, 대학교는 180으로 주제를 나열하고 분류기호를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위주제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본표에서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하위주제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디지털 자료의 접근을 위한 도구(디렉토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초판을 분석하여 오늘의 도서관 분류법 연구에

적합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을 위해 분류체계의 구성, 분류기호 합성, 새로운 주제 처리 방법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첫째, 분류체계의 구성에서 주류는 크게 11가지로 구분되며, 물질과 물리학-생명-정신-기록 순으로 배열되고, 각 주류는 000에서 999로 세분되어 열거식으로 나열되었다. 보조표인 '카테고리 표 및 색인'은 약 1,000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본표의 분류기호와 합성하여 복합주제를 나타낼 수 있다. 기호법에 있어서는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둘째, 분류기호 합성 방법으로 동일 주류 내에서 합성하는 방법, 다른 주류와 합성하는 방법, 보조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분류기호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 기호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셋째, 새로운 주제 처리 방법에 있어서 본표에 없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면,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삽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다. 동시에 본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Y 문자기호를 이용하여 향토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전의 분류법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인 복합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 합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패킷을 지원하는 보조표 운영을 통하여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자관별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분류법으로 분류체계에 새로운 주제를 쉽게 삽입할 수 있거나,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간략한 분류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제공하였다.

제언으로 주제분류법과 랭가나단의 콜론분류법 및 블리스의 서지분류법 제2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검색 도구로서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목록은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보검색을 위한 도서관 분류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ghtol, C. (2004a). The Subject classification of James Duff Brown(1862-1914). In ASIST SIG/CR, Providence, R.I.
<http://www.dsoergel.com/571/BrownClassificationBegtholSIGCR-04.ppt>
- Beghtol, C. (2004b). Exploring new approaches to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The Subject Classification of James Duff Brown. *Library Trends*, 52(4), 702-718.
- Brown, J. D. (1898). *Manual of library classification and shelf arrangement*. London: Library Supply Company.
- Brown, J. D.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London: Library Supply Company.
-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Vol. 1. 23rd ed. Dublin, OH: OCLC.
- Kumbhar, R. (2012). *Library classification trends in the 21st century*. Oxford: Chandos Publishing.
- Sayers, B. (1915). *Canons of classification applied to "The subject", "The expansive", "The decimal" and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s: A study in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method*. London: Grafton.
- Sayers, B. (1918).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With readings, questions and examination papers*. London: Grafton.
- Sayers, B. (1959).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3rd ed, rev. London: Andre Deutsch.